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동아시아 냉전과 조선에서의
정치적폭력의 기원

— 해방 1년사를 중심으로 —

임 철

(LIM Chol:쓰다주쿠대학)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1997/2/21

동아시아 냉전과 조선에서의
정치적폭력의 기원

— 해방 1년사를 중심으로 —

임 철

(LIM Chol:쓰다주쿠대학)

동아시아 냉전과 조선에서의 정치적폭력의 기원

— 해방 1년사를 중심으로 —

임 철

(LIM Chol:쓰다주쿠대학)

냉전의 종말과 신시대의 도래가 선언되어 시장경제와 의회제민주주의의 승리에 의한 역사의 종언이 주장되어진지 오래다. 아시아 NIEs의 성공과 APEC에의 기대, 그리고 지나칠 정도의 globalization의 강조는 반대로 이들의 이면에 감추어져있는 모순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만들어진 유퍼리즘이 사라진다고 해보면, 모순과 문제점은 그대로 남겨진채로 뭔가 상황이 자연히 해결해줄리도 없는 일에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모순의 대표적인 한가지가 조선분단의 문제라는 것에는 조선인은 말할 것도 없이 현대와 미래에 본질적인 관심을 가진 대만인, 일본인은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의의가 있을 리 없다. 조선분단을 초래한 역사전체의 인식은 그 시작에서부터 남북조선에 있어서는 물론, 특히 미국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오랜기간 금기시(禁忌視)되었거나 계속해서 왜곡되어져 온 것은 명백하며 그것이 새로운 상황하에서 어느 정도 바뀌어 왔는가 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로서 추궁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점차 표면화되어지고 있는 북측의 실정·모순은 물론, 그들에 의한 사태에의 대응이라는 문제도 포함되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글자 그대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조선현대사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의 새로운 상황으로서, 기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동서냉전체제의 변화 및 여러 국가간의 힘의 관계의 일대 변화를 반영하고, 1991년말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합의서」가 남북쌍방의 당국자에 의해 채택되어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이후 사태의 진행은 남북민중 뿐만아니라 현대사회의 여러가지의 모순이나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민중의 기대에 따른 방향과는 아득히 멀게 되었다. 결국, 남북은 먼저 이데올로기상의 이유에 의거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인식상, 행동상의 제약의 해소를 목표로 노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맹세를 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정정 막다른 골목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먼저, 조선분단의 문제에 관한 인식이 종래의 피상적인 이해에 그쳐, 깊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사의 문맥에 맞추어 생각해보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냉전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요소, 즉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의 조선사회의 분열·대립에도 깊게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극복을 위해서는 남북조선의 입장의 시비나 정통성이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인접지역이나 동아시아, 세계적인 의미에서도 관련있는 모든 분야에서 막대하고도 眞摯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심포지엄의 주제도 바로 이것을 위한 시도와 별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싶다.

1. 「조선인민공화국」이 지향했던 목표

조선분단문제를 주로 하는 조선현대사만큼 왜곡과 demagogy 에 지배되어져 온 역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본 보고에서는 상세하게 들어 갈 여유는 없지만,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설명 해 두고 싶다. 말하자면, 오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진 조선에 있어서는 「진보적 민주주의」이념의 실현을 지향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신민주주의적 변혁을 동반하는 독립이 목표시되어졌다. 따라서, 여운형(呂運亨)의 건국동맹을 시작으로, 일본의 패전에 즈음하여 석방을 쟁취한 정치범·독립운동가들이 객관적인 정세의 요구에 대응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각지에서 일어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더욱이 과거에 민족적 죄악을 범한 차후에도 신국가의 건설을 방해 할 가능성이 있는 반동세력과 싸우기 위해 「국내의 진보적인 민주주의 세세력에 의한 통일전선의 결성」이 호소되어졌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해 온 투사들과 그 지도적인 집결체를 환영하는 것이 표명되어져,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이 선언되어진 의미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였다. 각각의 사정이 다르다고는 하나, 오늘날 남북조선모두 그 착실한 평가는 커녕 기본적 공통의식조차 결여되어있는 점은 「해방」이라는 현대사의 핵심에 관한 문제만큼 중요하다. 결국은 「노동자, 농민, 전부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국가」, 「전인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요구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정권」을 표방한 「인민공화국」의 55명의 중앙인민위원회에는 아시다시피 좌우를 문제삼지않고, 일본과 싸워왔다고 생각되어지는 광범위한 인사가 망라되어졌을 뿐만아니라, 시정방침으로는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의 토지의 몰수와 농민 무상분배, 소작료의 3·7제 등의 민주적인 정책이 언급되어진 것에 있어, 좌파의 영향이 두드러지지만 사회주의정권은 아니었다. 글자 그대로의 민족적 정부로서 굳이 말하자면 대일협력자, 즉 친일파의 문제만이 현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남에서는 「인민공화국」은 7도, 12시 131군에 하부 정부기관으로서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각 위원회는 「인민공화국」과 같은 구조로 선전부, 치안부, 식량부, 재정부 등으로 이루어져 농민조직이나 노동조합, 치안대 등의 대중단체와 함께 활동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조직하고 활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에는 공산주의자, 항일운동가, 학생, 동원해제된 군인, 농촌의 지주·엘리트 층, 때로는 일제시대의 관리도 포함되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9월 8일 상륙해온 미국 제24군은 조선총독부의 항복을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군정을 실시하고 총독부의 기구를 그대로 계승한 군정청을 발족시켜, 군정의 고문에 저명한 친일파나 「인민공화국」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민주당의 지도자를 임명하여 「인민공화국」과 대립했던 것이다. 이 과정을 보다 빠르게 예리한 문제인

식에 서서 체계적이면서 실증적으로 밝힌 미국인 학자 Bruce Cumings 에 의하면, 이 정세를 혁명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미국 군정의 아래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민족적 편견의 관점에서 「인민공화국」의 미래는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야말로 「조선에 있어서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의 기원과 그 후의 사태의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구해질 것이다. 이 1945년의 시점에서 1950년 6월의 조선전쟁의 발발까지는 중앙-지방-남북 수준에서와 각각의 수준에 있어서 점차 폭력에 의한 지배, 통치가 확대되어질 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극심하게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 1945년 당시의 조선남부의 작은 마을에 있어, 자국의 「독립」을 떠맡으려는 사소한 활동조차 미국의 세계적 국익의 관점에서부터 동아시아의 민족해방운동이 사회주의의 영향하에 진전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혼신의 노력이 더해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 조선 민중에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민족해방운동측과 미국군정이 자기자신의 이익에 기초하여 조선내의 질서를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과의 대립 구조는 「해방」의 시점부터 46년의 대구를 중심으로 한 10월인민항쟁에 이르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중에, 조선민중 속에 왜 자신들이 탄압되어지고 폭력에 휘둘러지고 살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이해못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서 거대한 잘못으로서 결정되었다. 이것을 새롭게 검토해 보는 것의 의미는 그 이후 조선문제에 주목할 때, 특히 오늘날 아시아 NIEs 의 경제적 성공만이 주목되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상황에 있어서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도 조선해방 1년사에는 조선에 관한 그 이후의 모든 문제의 발단이 포함되어져있다고 볼수 있고 어쨌든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생각하기에는 결여되어지는 것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2. 미국군정의 행동과 「인민공화국」·지방인민위원회

1945년 2월에 알타회담에서 확인되어진 반파시즘의 이념에선 인민에 의한 파시즘잔재의 일소나 그들 자신의 선택에 기초한 민주적 정체(政體)의 설립이라는 연합국의 방침은 유럽뿐만 아니라 대일 포츠담선언에서도 적용되어진 성격의 것이었으나 점령정책이 각지에 구체화 되어지는 시기에 즈음해서는 미·소의 세력권 구상과 민족자결의 원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조선의 미국군정 당국은 미·소 협력에 있어 다국간 신탁통치를 겨냥한 국무성의 SWNCC 의 지령을 10월 중순이 되어 받아들였지만, 그 시기는 이미 「인민공화국」과 지방인민위원회가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도되어지고 있어 북측의 소련인들과 연결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와 함께 친일파를 포함한 한민당(韓民黨)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국무성의 당초의 방침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향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인민공화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나 중경의 김구들의 이용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조선 상륙후 1주일간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일적이 일본인의 꼭두각시였던 조선인이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것은 친소 공산주의자의 제5열이라고 생각하게 된 미군정의 관계자들이 차츰 조선인의 격분을 샀다는 것은 친일파·보수파를 미군정의 고문단으로 임명한 것을 선두로 일일

이 열거하면 한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45년 10월 「인민공화국」에 대항한 통렬한 때도에 가득찬 부인성명(否認聲明)은 「인민공화국」 지도자를 「우열(愚劣)한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등, 민족적 멸시에 가득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외에 「무력의 사용」 조차 시사하고 있어, 보수파의 신문에 조차 게재를 거부당했던 정도였다. 그러한 미국군정과 조선인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미군정에 의한 식민지 관료기관의 부활정책도 그러한 정책을 결정적으로 했던 것에 있어, 관료에 임명되었던 조선인의 대다수는 구 총독부의 관리나 한민당원이었다. 게다가 45년 가을, 북에서는 식민지잔재는 대체로 일소되었기에 남으로 피한 관리를 포함하여 관리의 경력을 가진 인간의 수가 남에 있어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위기감도 증대했다. 더욱이 점령군이 경찰과 사법기구를 권위주의적인 친일파인 한민당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한 것에 의해 남의 「폭력에 의한 지배」의 조건이 갖추어졌던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 처럼 한민당에는 근대정치에 관한 요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목적을 위해서 결성되어, 자기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조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폭력이라는 수단을 독점하는 지위, 즉 정치권력의 중추에 배속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식민지시대 이래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전국적 경찰조직이 친일파와 우파의 손에 맡겨져 전형적인 반혁명적인 억압력으로서 이용되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Cumings에 의하면 미군정이 일제의 전국적 경찰조직과 그 조선인요인을 존속시킨 이유는, 그들 이외에는 결의와 단결을 가지고 좌익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랜 기간 일제에 봉사해왔던 조선인경찰관에서부터라면 친일파의 추방과 처벌에 열심한 정치집단이 권력을 잡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러한 이해(利害)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선인 집단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강한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인민공화국」과 남의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민위원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힘은 경찰 뿐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11월에는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창설이 진행되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살펴 볼 것 처럼 「인민공화국」의 전라북도 남원인민위원회가 경찰 및 미군 전투부대와 격돌을 계기로 하고 있다. 점령군은 조선에 군대를 만드는 것에 관하여서는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명령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북에서 그러한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공화국」의 「국군준비대」의 실정을 걱정하여 「금방이라도 미국이 단독으로 남조선에 있어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하지(John R. Hodge)미군 사령관)를 위하여 채용되어진 정책이었다. 이리하여 군정하의 경찰과 경비대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 빈발한 민중투쟁의 진압을 위한 2대무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의 사명한가지는 국무성의 의향과는 관계없이 이 공산주의 정부——「인민공화국」——를 분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정책은 좌익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정치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경찰과 경비대의 원호를 받은 우익이 메우는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틀에서 생각해보면 그 후의 사태의 추이가 확실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점령군부대가 각지방의 도, 군에 도착하여 군정실시를 위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해, 미군정은 각각의 지방인민위원회의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는 45년 8월 20일 이래 온건좌파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 도내의 저명인사를 망라한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가 결성되어 인민위원회로 되었어도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며 순조롭게 활동하고 있었으나 군산·이리·남원 등에 미군이 진주하자 도지사이하 일본인 관리에 대신하여 신임관리로 예외없이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선출해 3부 14군 177읍면에서 군정이 실시되었다. 여기서 발생되어진 사건의 하나가 이미 다루었던 남원사건이었다. 남원의 인민위원회는 구 일본인의 재산 전부를 군정 관할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명령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민위원회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하며 거부했다. 과거, 독립운동을 방해해온 전라남도의 경찰부장 김응조는 11월 15일, 무장경관 20명과 미군병사 수명 및 남원경찰서원과 함께 인민위원회를 습격하여 문서 등을 압수하고 간부 수명을 전라경찰서로 연행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다음날 16일에는 수십명이 체포되고 17일 오후에는 수천명의 민중이 불법탄압반대, 체포자의 즉각석방을 요구하는 데모를 실시한 결과 미군과 경찰측이 발포하여 사망자와 부상자를 각각 3명, 수십명을 내는데 이른 사건이었다. 조선측의 기록과 미군측이 전하는 숫자와는 약간 다르지만 대강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전라남도에서 강력한 인민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던 다른 군에서도 규모는 작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속출했다. 익산에서도 금제에서도 또 이리에서도 미군부대는 '일본인의 재산을 강탈했다' 든가의 트집을 구실로 인민위원회를 탄압하고 지도자를 체포하곤 했고 그 뒤를 이어 서울에서 사람이 와 한민당의 지부나 조직을 만들었다. 이리에서 군정에 의해 설치된 자문회의는 지주세력이 우세했고 경찰이 상업, 수송, 산업 전체의 인허가권을 장악하여 집회나 데모를 통제하고 모든 신문·잡지·매디어를 검열하게 되었다. Cumings에 의하면 이 시기의 전라남도는 특권적 지주층이 어떻게 혼란기의 위기를 극복하여 능숙하게 연명했는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였다고 한다. 확실히 정치적 폭력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어가는 발단과 과정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군의 진주가 가장 늦었던 전라남도에서는 해방후에도 도청의 일부에는 남아있던 관리도 있었지만 몇 개의 군을 제외하고는 군수이하 면장이나 보안서장에 인민위원회의 관계자가 취임하여 농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군정에 의해 설치된 지주·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10인의 자문회의는 그들의 판단대로 각군의 행정관을 임명하여 세력을 만회하기 시작했다. 별교사건은 남원사건과 비슷하다. 즉 그 땅의 지주·고리대금업자로 유명한 서민濠는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한 강한 반일사상의 소유자였다는 것도 영향을 주어 8·15 이후 건준의 지부의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었으나 실정은 치안대를 사영하여 농민을 박해하고 노동협회의 해산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결과 결국은 반동분자를 모아 한민당 지부를 세우고 위원장이 되어 한층 반동성을 강화하여 11월 말에는 돌연 인민위원회·노동협의회·청년단·보안서 등을 습격하여 미군에는 그들이 공산당원으로서 무기를 은닉하고 미군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무고하여 그 모든 단체의 간부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민중의 자발적인 행동이 미군점령하에서 「빨강이」 공격이라

는 명목하에 지주·친일파의 이해에 기인한 정치적폭력에 의해 탄압을 당해진 사실을 웅변히 말하는 예는 없다.

그 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은 38선 이남의 인민위원회가 활동하고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났다.

이러한 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일제의 패전을 계기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던 조선민중에 의한 신민주주의 즉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 건국운동은 2·3개월로 지나지 않아서 이를 혁명적 상황이라고 파악한 미군정과 미군정에 의해 격려되어진 친일파·반동파의 폭력에 의한 간섭을 당하게 되어 「인민공화국」이나 인민위원회, 그 밑에 모인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도 철저히 탄압되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간신히 45년 12월 말 난산의 끝에 미·영·소에 의해 합의되어진 모스크바협정이 결정한 조선독립계획안도 냉전세의 대응을 선취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미군정과 친일파·반동파 세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관념론적 민족주의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해 위태해지는 사태가 되어, 1946년 초두부터 정당등록등으로 상징되어지는 것과 같이 미군정에 의한 조선공산당과 그 심퍼사이저(Sympathizer), 노조 등에 초점을 준 정치적 탄압이 더욱 그 심하게 되어진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다.

3. 10월인민항쟁

해방후의 3년사를 돌아보면 1946년 10월의 경상북도 대구인민항쟁으로서 알려진 일련의 대중봉기 만큼 미국인을 경악시켰던 것은 없다. 미군정의 내외에는 반란이 자생적인 '진짜 혁명' 이라고 인식했던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군정사령관 하지는 평양, 혹은 모스크바의 지령이 있었거나, 북으로 부터의 군사공격의 전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먼저 46년 9월 23일에 시작한 부산 철도 노동자의 총파업은 즉각 미군점령하의 전역에 파급되어 10월 2일의 대구 대중데모는 전라남도 이외의 남조선 전역의 정치정세의 불안을 유발시켰고 12월까지 인민항쟁은 계속되었다. 9월 파업이 시작되었던 시기에 거의 모든 신문이 지지했었고 서울에서도 약 3백개에 가까운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 3만명의 노동자와 1만6천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남쪽 전역에서 그 참가자 수는 약 25만명에 이른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예전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해 온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영향하의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미국인 신문기자 한 명이 일본에서 항쟁이 계속되는 대구로 가 직접 취재한 기록이 있다. 그것에 의하면 10월 1일 밤, 대구 철도원 노동자 4천명은 대구역 앞에서 진행 중인 철도파업지지의 집회를 열었다. 그 대회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오후 10시에는 해산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시각보다 훨씬 앞서부터 경관이 출동을 시작하여 무차별로 마구 쏘아대어 회의를 해산시킴으로써 한구의 시체가 발견되어지고 게다가 밤새 총성이 들렸다. 아침이 되자 노동자도 학생도 농민도 초등학교의 아이들도 누구누구 할 것없이 문 밖으로 나와 경찰서를 향해 행진하였다. 학생들은 경관에게 살해되었다는 학생의 시체를 짊어지고 가서 경찰서 앞에 놓고 서장에게 ①경관의 무장해제 ②정치범의 석방, 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했으나 제2항은 미군의 허

가없이는 어찌 할 수 없다며 거부되었다. 이 무렵 식민지시대에 일제에 협력했던 경력을 가진 경찰관이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정오가까이 되어 민중은 서내에 들이닥쳐, 서루를 찢고 수백명의 정치범을 석방시키고 약 1시간 정도 경찰서를 점거했으며 이 사이 시내의 여러 곳에서 집회가 열려 경관의 포학을 공격했다. 정오경에 미군장교가 경찰서를 포위한 군중에 대해 오후 3시까지 해산 할 것을 명령하여 미군의 전차나 장갑차가 출동해 있었으나 군중은 제각기 흩어져 다른 경찰서나 주재소, 경관의 집을 덮치기 시작하여 다수의 경관이 맞아서 살해되고 부상당했다. 이 날 밤, 미군의 순찰경관은 길거리와 공터에서 경관들의 시체를 계속 발견했는데 손발이 뿔뿔이 흩어져있는 시체도 있었다. 이 폭동은 주면의 농촌 뿐만아니라 다른 각 도에도 파급되어 농민에 의한 격렬한 투쟁은 군사무소의 습격으로 발전되어 군수를 살해하고 경관이나 공무원을 죽이고 지주를 덮쳐 소작인위원회가 농촌을 지배한 곳도 있었다. 3일째에 대구는 평정을 되찾았으나 이번에는 천백명의 경관 증원대와 숨어있던 경관들의 보복이 시작되어 체포되었던 반란군의 집이 동료의 우익도 같이 되어 약탈당하게 되었다. 검거자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지도자, 교수, 법률가, 여운형의 인민당의 간부까지 이르러 형무소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남조선의 전역에서 거듭되었던 피 피린내 나는 소란의 실례는 미군측의 공식 자료에 의해서도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 46년 가을 경, 3개월에 걸친 인민항쟁을 통해 살해된 경찰관은 약 2백명이상, 공무원들을 포함한 사망자 수는 천명 이상으로 추측되어지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체포자 수도 3만명 이상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쌀도 거의 수확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진 민중의 폭력이 아무 이유도 없이 마구 사용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앞서 보아 온 것 처럼 일제시대와 미군 점령하의 약 1년간 민중에 대한 잔학행위를 해온 미움을 받아 마땅한 일당을 향한 것이었고 확대되어진 자에 의한 원초적 폭력이었으나 정치적 폭력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권력측의 폭력—테러리즘과 민중의 저항적 폭력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남조선의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하다.

이 항쟁은 돌연히 발발한 이상사태도, 개인적인 책략의 결과도 아니었고 1년 이상이나 앞서부터 계속 호소해 온 「인민공화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즉 신민주주의에 기인한 변혁, 인민위원회로의 권력 유양, 노동조합·농민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중지 등의 요구가 전부 무시되어져 그 울분이 폭발점에 이를 정도여서 이것은 당연히 예상되어진 논리적 귀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의해 패배했다. 노동자와 농민도, 小부르조아도 인테리도 압도적인 경찰력과 군사력에 의해 억압되어져,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은 매장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북조선노동당이나 소련은 이 움직임과는 관계가 없었다. 강한 관심은 기울였으나 전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의 헤게모니의 귀추에 대한 것 이상은 아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남의 실정에 뿌리를 둔, 남의 민중에 의한 반란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끝맺음에 대신하여 —냉전과 테러리즘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2차세계대전 직후 식민지시대 이래 신민주주의이념, 즉 사회적계세력이 통일전선에 서서 민중의 조선독립을 겨냥한 해방운동은 연합국측의 미·소간의 전후 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싹트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의 분할 점령이 행해졌다는 조건 하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려고 했던 시점에서 미국군정의 냉전을 선취한 반공·민족멸시 정책과 거기에 격려된 친일파·민족반역자·지주세력이 그들의 사활문제를 걸고 행한 「인민공화국」·인민위원회에 반대할 책동이 결탁되었던 것에 의해 경찰력·군사력을 기축으로 한 정치적 폭력의 전면적인 행사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뒤에 조선전쟁의 발발과 휴전에 의해 일단락지어진 시기까지 민중운동에 대한 정치적·폭력적 탄압, 살육이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제주도 4·3사건도 여수·순천반란도 빨치산투쟁도 그것들에 따르는 엄청난 유혈과 죽음도 전부 그 시작은 해방후 1년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제는 있는 그대로 철저히 일어난 일이 연구되어지고 논의를 통해 먼저 남북조선의 민중에게 동일한 절대 불합리한 백색테러리즘을 경험한 타이완의 민중, 재일조선인, 냉전하에서 민주변혁을 저지당한 일본민중들 전원에 의해 자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절실한 문제와 연계시켜 깊이 파고들어 연구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연구·조사가 착실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꾸준한 작업을 통해 제각기의 통절한 경험이 동아시아 민중의 공통의 상식으로 되는 것에 의해 처음으로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공유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는 가능성의 일단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끝)